

반려동물 등록 늘었지만… 현황 파악 ‘깜깜’

지난해 7만974마리 등록… 전년 대비 6.5% 증가
도내 반려동물 실태 아직도 2018년도 자료 활용
자발적 신고에 의존… 도 “추후 전수조사 예정”

등록 수수료 면제, 흥보 등의 노력으로 도내 반려동물 등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도 설계와 관리 방식의 한계로 ‘등록된 개체 수’와 ‘실제 규모’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반려견 등록 건수가 2023년 6만1139마리에서 2024년 6만6578마리(8.0% 증가), 2025년 7만974마리(6.5%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더 많은 반려인이 부담 없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 중 선택하면 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

하기 위해 2014년부터 등록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실제 반려 동물 규모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체계’ 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 파악된 도내 반려동물 현황은 2018년도에 진행된 제주 동물보호·복지 관련 연구용역으로, 이에 따르면 도내에는 개 9만5304마리와 고양이 3만4505마리 등 총 12만 9899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지역 수의사들의 협조를 받아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용역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가운데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반려동물 출생, 사망, 분실·재회 등 정보가 생신되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 반려동물 현황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도내 반려동물 전수조사에 대해 제주도는 시간과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선읍·면·동별로 사람이 직접 찾아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후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2리 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 지구.

서귀포시 제공

남원읍 태수로 주변 정비사업 추진

2028년 준공 예정… 집중 호우 침수 피해 해소
하천 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등 538억원 투입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주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귀1 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538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천 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45억원을 투입 ▷ 신도2·상하모·서성로·신효·의귀1 등 재해위험 5개 지구 정비 ▷ 상하모 우수저류지 설치 ▷ 하예·월라봉 급경사지 정비 ▷ 수산2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되는 의귀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우수가 의귀천으로 유입되지 못해 태수로 주변 주거지와 농경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뤄졌다. 2028년 준공되면 263㏊

가 침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창고천 등 지방하천 4개 지구와 정의논각 등 소하천 4곳 등 하천정비사업에 151억원을 투입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산책로 개설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이뤄진다.

또 242억원을 들여 영락·한남2·수산2리 등 9개 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대정·남원·성산 등 6개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농로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른 지역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 단계부터 침수 원인에 대한 현장 중심 분석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서귀포시 빙집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빙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빙집을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 시설(임시주차장·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3000만원이 투입된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일시적인 빙집으로 노후·불량 상태가 양호해 활용이 가능한 빙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등의 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위영석기자



겨울철 한남해변의 매력 12일 제주시 애월읍 한남해안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겨울 바다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5개 지구서 지적재조사 진행

제주시가 올해 연동지구와 협재리 2지구 등 모두 5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면적은 723필지, 65만101㎡다. 지구별로 보면 ▷ 연동지구(42필지·28만9733㎡) ▷ 협재리2지구(317필지·10만3125㎡) ▷ 협재리10지구(144필지·5만2653㎡) ▷ 협재리

13지구(46필지·2만4343㎡) ▷ 청수리5지구B(174필지·18만247㎡)다.

제주시는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했다.

제주시는 2027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지구 지

정, 지적재조사 측량을 비롯해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서 접수, 이의 신청 접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9곳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으며, 이 중 26곳(4840필지·864만 1000㎡)에선 사업이 마무리됐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연납 신청을 하려면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2)나 읍면동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6만9000여 대에 대해 해선 별도 신청 없이 연납할 수 있도록 1월 14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율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DIA 대상